

# 李楨 追崇과 『龜巖集』 간행으로 본 泗川 지역의 퇴계학맥 계승

우 정 임\*

- I. 머리말
- II. 龜巖 李楨 追崇 활동
  - 1. 龜山祠 건립과 이정 配享
  - 2. 龜溪書院 사액과 金德誠 追享
  - 3. 諡號 요청과 大觀臺 重建
- III. 『龜巖集』의 간행
  - 1. 1641년(인조 19) 『구암집』 原集 간행
  - 2. 1749년(영조 23) 『구암집』 續集 간행
  - 3. 1902년(고종 6) 『구암집』 重刊
- IV. 맺음말

## 국문초록

본고는 泗川 지역 儒林이 李楨을 추승하고 『구암집』을 간행함으로써 이정을 서부경남지역 퇴계학맥을 대표하는 학자로 위상을 세워갔음을 밝힌 것이다. 이정의 후학들은 龜溪書院을 세워서 그를 배향하고, 龜山祠碑를 세워 이정이 사천에서 퇴계의 학통을 계승하였음을 분명히 하였다. 龜巖書院 春秋享告文을 쓴 洪可臣, 龜山祠碑를 쓴 許穆은 모두 퇴계 학맥을 잇는 영남 사림들이다. 19세기에는 퇴계의 후손 李家淳이 이정의 諡號를 청하면서 이정

\* 부산대학교 교양교육원 강사 / wooji1670@hanmail.net.

을 이황의 으뜸가는 제자로 평하였다. 그리고 한말에 사천의 유림은 ‘대관대 유계’를 만들고 대관대를 증진하여 이정을 배향함으로써, 퇴계학맥의 儒風을 계승하였다. 1

한편, 사천의 유림은 1641년에 선생의 遺文들을 모아 『구암집』 原集을 刊行하였다. 이때 서문은 趙綱이 짓고 跋文은 許穆이 지었는데, 이들은 퇴계의 학맥을 계승한 영남사람이다. 이후 1749년에는 『구암집』 속집을, 1902년에는 『구암집』을 중간하였다. 이때에도 퇴계의 후손과 영남사람이 서문과 발문을 쓰는 등 문집 간행에 주도적으로 참여하였다. 이로써 한말에 사천은 서부 경남지역에서 퇴계학맥을 계승한 중요한 지역으로 위상을 차지하였다.

◆ 주제어

---

李楨, 『龜巖集』, 宋麟壽, 大觀臺, 龜溪書院

## I. 머리말

李楨(1512~1571)은 16세기 서부경남지역 퇴계학맥을 대표하는 위치에 있었던 사천지역 대표적인 성리학자로,<sup>1)</sup> 자는 剛而, 호는 龜巖, 본관은 泗川이며, 李湛의 아들이다. 이정의 위학자세와 생애 및 관직생활에는 20대에 스승으로 사사했던 宋麟壽(1499~1547)와 魚得江(1470~1550)의 감화와 영향이 컸다.<sup>2)</sup> 이정은 25세에 장원급제하여 成均館 典籍에 제수된 이래 60세에 사망할 때까지 36년 가운데, 外職에 보임된 기간이 19년이고, 조정에서 벼슬한 기간은 4년에 가깝다.<sup>3)</sup>

이정은 26세인 1537년(중종 32)에 聖節使의 일원인 書狀官으로 明에 다녀오면서 唐宋元의 古書에서 儒學에 관한 책을 다량 가져와 뒷날 성리학 연구에 크게 이바지 하였다.<sup>4)</sup> 이정은 32세인 1543년(중종 38)에 퇴계(1501~1570)를 처음 만난 이후 긴밀히 교류하면서 성리학 서적을 간행하거나 서원을 건립함으로써, 당시 퇴계가 중심이 되어 전개한 道統을 확립하는 작업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였다. 즉 이정은 19년간 외직에 있으면서(榮川·善山·淸州·慶州·順天에서 지방관으로 재임) 3종의 서적을 편찬하고 22종의 서적을 간행하였다. 그가 편찬하거나 간행한 22종의 서적은 조선에서 도통인식이 확립되어 가는 과정에서 宋元明代의 주자성리학자의 도통을 확인하고 이해하는 데에 필요한 서적들이었다. 그리고 그의 서적 편찬과 간행 활동은 조선의 주자성리학자의 道統에서 金宏弼의 위치를 굳건히 하는데 결정적 역할을 하였다.<sup>5)</sup>

이정은 사천지역에서 퇴계학맥을 대표하는 위치에 있었음에도 영남학파에

- 
- 1) 黃渭周, 「退溪와 龜巖의 往復書翰」, 『退溪學과 儒敎文化』47, 2010, 310쪽.
  - 2) 李樹健, 「龜巖 李楨의 家系와 生涯 및 ‘退南’과의 關係」, 『안동사학』 9·10, 2005, 313~314쪽에 李楨과 魚得江, 魚得江과 退溪, 李楨과 退溪의 交遊내용을 설명하고 있다.
  - 3) 『龜巖集』 卷2, 附錄, 墓碣銘[許穆].
  - 4) 『龜巖年譜』 泗川文化院, 2002, 21~36쪽.
  - 5) 우정임, 「龜巖 李楨의 서적편찬과 간행이 16세기 道統 확립에 미친 영향」, 『지역과 역사』38, 2016, 4.

서 이정이 차지한 위상과 16세기 성리학 발달에 그가 기여한 역할에 대한 평가는 여전히 미흡하다고 할 수 있다. 인물에 대한 연구는 해당 인물의 생애와 그가 이룩한 업적 등이 중요한 연구 대상이 되겠지만, 후대인들이 그를 추송하고 평가하는 내용 또한 인물 연구에서 중요한 부분이다. 이러한 인식 아래 본고는 사천지역 유림이 이정을 추송하고 그의 문집을 간행하는 과정을 검토하여 이정 사후 그에 대한 평가는 어떠했는지, 그리고 그것의 정치사회적 함의는 무엇인지를 살펴보고자 한다.

먼저 1장에서는 사천지역 유림들이 龜山祠를 건립하고 이정을 배향한 뒤 龜山祠碑를 세워서 그를 추송하고, 이후 서원의 형태를 갖추어 龜溪書院으로 賜額을 받아 이정의 학덕을 기리는 과정을 검토할 것이다. 그리고 사천의 유림이 이정의 시호를 요청하고 한말에는 大觀臺儒契를 결성하여 大觀臺를重修하고 이정을 配享함으로써 사천이 퇴계학맥을 계승한 서부경남지역 유학의 거점으로 자리매김하였음을 살펴볼 것이다. 2장에서는 이정의 문집인 『龜巖集』이 세 차례 간행되는 과정을 검토하여 사천지역 유림이 『구암집』을 간행함으로써 이정을 서부경남지역 퇴계학맥을 대표하는 학자로 위상을 세워 갔음을 밝히고자 한다.

## II. 龜巖 李楨 追崇 활동

### 1. 龜山祠 건립과 이정 배향

이정은 57세 되던 해인 1568년(선조 1)에 부제학에 제수되었으나 글을 올려 사양하고 사천에 돌아왔다. 그는 사천으로 돌아와 학문을 도야하고 후학을 양성하고자 하였는데, 그의 학문도야와 후학 양성에 대한 열정은 “사천에 龜巖精舍를 짓고 날마다 諸生들과 학문 강론을 게을리 하지 않았다. 배우는 이들이 龜巖 선생이라 일컬었다”고<sup>6)</sup> 한 許穆의 墓碣銘을 통해서도 알 수

있다.

사천에 돌아온 다음해 5월에 이정은 靜觀臺와 龜巖精舍를 준공하였다. 이 때 퇴계 이황이 사천 구암리에 와서 靜觀臺를 大觀臺로, 龜巖精舍를 大觀臺書齋로 개칭하게 하고, 동서양재를 居敬齋와 明義齋로, 외실을 不欺堂으로 명명하였다고<sup>7)</sup> 한다.

그런데, 吳二煥은 『구암집』에 수록된 이정의 시에서 이정이 ‘정관대’와 ‘구암정사’라는 명칭을 계속 사용하고 있다는 점과 『도산전서』 내집 권30, 『答李剛而(庚午;1570년)』 편지에서 퇴계가 이정에게 『구암정사』 『거경재』 『명의재』 『대관대』 『불기당』이라는 제목의 칠언절구를 수록하여 보내며 정사가 새로 지어진 것을 축하하는 것으로 보아, 퇴계가 1570년에 대관대와 부속건물의 명칭을 고쳐주었다고 이해하였다.<sup>8)</sup>

‘정관대’에 대해 『구암집』에는 己巳年(1569년)에 퇴계선생이 대관대로 고쳤다고 하였고,<sup>9)</sup> 퇴계가 구암정사와 거경재, 명의재, 대관대를 제목으로 시를 보낸 것은<sup>10)</sup> 분명하다. 이름을 고친 시기가 1569년인지, 1570년인지는 명확하지 않지만 퇴계가 이름을 고친 것은 분명하다고 하겠다.

사천지역 유림이 『구암집』을 간행하면서 퇴계가 이들 명칭을 개칭하고 시를 지어준 일을 주목하여 기록한 것은, 사천지역 유림이 이것을 이정이 퇴계로부터 사천에서 퇴계의 학맥을 잇는 인물임을 확인받는 중요한 계기로 인

6) 『龜巖集』 卷2, 附錄, 墓碣銘[許穆], “... 宣祖之元年, 白爲副提學, 上書辭之, 仍陳勸戒幾千百言, 皆格言至論, 自是, 凡除拜, 皆不就, 於所居作龜巖精舍, 東曰居敬齋, 西曰明義齋, 日與諸生, 講學不倦, 學者稱之曰龜巖先生”.

7) 이종철, 『龜巖年譜』, 泗川文化院, 2002, 147쪽.

8) 吳二煥, 「大觀臺 緣起-李楨과 曹植의 관계를 중심으로-」, 『남명학연구』31집, 12쪽.

9) 『龜巖集』 卷1, 原集, 오언절구, 「登靜觀臺 退溪先生改以大觀臺○己巳 眼底滄溟瀾 山前綠竹清 風雲千載意 臺上此時情」 이때 己巳年은 1569년이다.

10) 『龜巖集』 卷2, 續集, 附錄, 詩 退溪先生, “洛水呈書啓聖神, 箕疇千載炳彝倫, 誰知揭號巖棲客, 不學成都賣卜人龜巖精舍, 一寸膠無千丈渾, 玉淵秋月湛寒源, 端居日夕如臨履, 箇是存存道義門 居敬齋, 義路如砥坦且明, 一昏心燭故難行, 欲知大寐如醒處, 惟在研精積久生 明義齋, 謾聞偏見世爭譁, 渭水涇流各自多 試上高臺觀遠大, 聖門論道更如何大觀臺”.

지하였음이 분명하다.<sup>11)</sup>

1568년(선조 1)은 ‘晉州獄事’<sup>12)</sup>로 인해 이정이 南冥 曹植(1501~1572)과 절교한 때이기도 하다. 남명은 이정보다 11년 먼저 태어나 이정이 죽은 다음해에 사망하였다. 이정이 남명과 언제부터 교류하였는지는 정확히 알 수 없으나 오랜 기간 동안 밀접한 교류관계를 유지하였다. 그것은 鄭斗가 쓴 이정의 行狀에서 남명이 頭流德山洞(지리산 덕산동)에 거처를 마련하자 이정도 그 가까운 곳에 땅을 마련했으며 그들은 세속을 초월한 벗이 되었다고 한<sup>13)</sup> 것에서도 알 수 있다. 그런데 ‘진주옥사’로 인해 이정은 남명과 갈등을 겪게 되었다. 후일 남명의 반대편에 서 있었던 이정 쪽은 남명의 영향권에 있는 嶺南 지역에서 배척을 받기에 이르렀다. 그리하여 사천이 영우 지역에 속해 있음에도 남명의 문인이 한 사람도 나오지 않는다.<sup>14)</sup> 16세기 중엽 퇴계와

11) 퇴계는 1501년에 출생하고 구암은 1512년에 출생하여 퇴계가 이정보다 11세 연상이다. 이정이 퇴계를 만난 시기는 32세인 1543년(중종 38)으로 구암이 榮川郡守로 재임하던 때(1541년 1월~1546년 2월)에 퇴계가 성균관 司成으로 있다가 휴가를 얻어 성묘를 왔을 때 도산에 있는 山堂으로 찾아가 뵈었다고 한다. 퇴계가 사망한 시기는 1570년이고 이정이 1571년에 사망하였기에 30년에 가까운 기간 동안 긴밀한 관계를 유지하였다. 이정과 퇴계의 관계에 대해서는 황위주와 우정임의 연구를 참조하기 바란다(黃渭周, 「退溪와 龜巖의 往復書翰」, 『退溪學과 儒敎文化』47, 2010, 우정임, 「龜巖 李楨의 서적편찬과 간행이 16세기 道統 확립에 미친 영향」, 『지역과 역사』38, 2016, 4).

12) 李樹健을 비롯한 연구자들은 ‘晉州淫婦獄事件’이라고 칭하는데, 이은식은 ‘진주옥사’라고 칭한다. 이은식은 진주옥사는 河宗岳의 후처인 함안 이씨가 관련된 옥사이고, 진주유생옥사는 함안 이씨의 집을 부순 진주유생들에 대한 옥사로 구분하여 이해하였다. 그리고 이은식은 淫婦라고 매도당하였던 하종악의 후처 함안 이씨가 관에서 간음사실의 유무를 조사 받은 후 방면되었으므로 ‘음부’라고 칭할 수 없으므로 ‘진주옥사’라고 칭해야 한다고 주장한다(이은식, 「龜巖과 晉州史獄」, 『구암사상 학술집』, 사천문화원, 2005).

13) 『龜巖集』卷2, 附錄, 行狀[鄭斗], “先生雅好山水, 每遇佳處, 必徜徉自適, 與南冥先生, 道契甚厚, 南冥卜築于頭流德山洞, 先生亦占地其傍, 擬結世外之侶, 年輔頰之騰, 遽出人意料, 交義頗不終焉, 先生猶然, 了無纖芥之嫌”.

14) 이은식, 「龜巖과 晉州史獄」, 『구암사상 학술집』, 사천문화원, 2005, 60쪽. 史載明, 「16-17C 초 남명문인의 형성과 강화」, 『南冥學研究論叢』9, 2001, 9쪽 표2 남명문인의 지역별 거주 현황 참조.

남명이 각기 경상좌·우도를 중심으로 학파를 형성하여 대치하고 있을 때 구암은 퇴계·남명을 모두 존경하는 스승 또는 선배로서 도의지교를 맺고 있었지만 출신 내지 거주지역상으로 남명과 근접한 관계였고, 학문적 지문과 질의 및 서신의 왕래는 퇴계와 더 친밀하였다.<sup>15)</sup>

진주옥사 이후 이정은 퇴계와 편지를 주고받으며 남명과의 관계를 어떻게 해야 할지를 의논하였고, 퇴계가 이정의 편에 서서 의견을 피력함으로써 인해 결국 퇴계와 남명의 불편한 관계가 형성되었으며,<sup>16)</sup> 그것은 결국 남북분단의 하나의 원인이 되기도 하였다.<sup>17)</sup>

진주옥사 이후 이정은 남명보다는 퇴계와 더욱 밀접한 교류관계를 이어나갔다. 1569년 정관대와 구암정사를 건축하고 퇴계로부터 서재의 명칭을 받고 축하하는 시를 받음으로써 이정은 사천지역에서 이황의 학맥을 잇는 인물로 확정되었다고 이해할 수 있다. 따라서 이후 사천지역 유림들도 이를 중요하게 여겨 문집에 명시하게 된 것이다.

그러나 이정이 안타깝게도 1571년(선조 4) 7월에 사망함으로써 그가 사천에서 후학을 양성한 기간이 만 2년으로 아주 짧았기에, 후학이 사천에서 학맥을 이어갈 수 있을 정도로 형성되지 못하였다. 이정의 문인이 쓴 挽章을 보면, 門人 生員 許思曾은 “선생을 모신지 10년도 지나지 않아 생사를 달리 하였다”고<sup>18)</sup> 하였으며, 門人 生員 柳暹는 “스승 섬기기 20년 동안 어리석음

15) 李樹健, 「龜巖 李楨의 家系와 生涯 및 ‘退南’과의 關係」, 『안동사학』9·10, 2005, 23~24쪽, 이정과 퇴계, 남명과의 관계에 대해서는 이수건의 연구를 참조할 수 있다. 그리고, 퇴계와 남명 사이에서 이정의 위상을 어떻게 설정할 것인가에 대한 연구를 비롯하여 구암 이정과 관련된 기존의 연구 성과는 정우락의 연구를 참조하기 바란다(정우락, 「龜巖 李楨 연구의 반성적 모색」, 『退溪學과 儒敎文化』52, 2013).

16) 진주옥사를 통해 남명과 퇴계, 이정의 관계를 살펴본 연구는 이은식의 연구를 참고할 수 있다(이은식, 「龜巖과 晉州史獄」, 『구암사상 학술집』, 사천문화원, 2005).

17) 李樹健, 『嶺南學派의 形成과 展開』, 일조각, 1998, 385쪽. 李秉杰, 『朝鮮前期 士林派 現實認識과 對應』, 일조각, 1999, 148쪽.

18) 『龜巖集』卷2, 附錄, 續集, 挽[門人 生員 許思曾], “屈指握衣未十秋, 無緣卒業隔明幽, 金鰲前約曾嗟咄, 玉 今期更謬悠, 感念儀形留眼底, 忍看書籍滿床頭, 風濤百里來何獲, 延佇靈宮淚不收”.

을 타일러 주셨는데 빨리 스승을 빼앗아 갔다”고<sup>19)</sup> 하였다. 또한 邊士貞은 “하늘은 장차 무슨 일을 하려는지, 유교 문하에 내려와 유학자 연이어 빼앗아 갔습니다. 후학들 의탁할 곳 없으니 유학의 도리 더욱 약해지게 될 뿐이며, 泗水 위에 부는 바람 매섭기만 하다”고<sup>20)</sup> 하였다.

이것을 보면 이정이 후학을 양성한 기간은 길게는 20년 정도로 보이지만 精舍를 짓고 본격적으로 후학을 양성한 것은 2년에 지나지 않는다. 그리고 퇴계가 사망하고 연이어 이정이 사망함으로써 사천에 유학의 도가 더욱 약해지고 학맥이 제대로 이어지지 못하였음을 알 수 있다.

또한 門生인 生員 姜愈가 쓴 挽章에는,

유학의 도가 남쪽에 있으니 퇴계선생께서 이곳 泗水(四川)의 물가에 전해 주셨다. … 문장 그 얼마나 훌륭했던가? 충효 또한 지극하셨다. 기동과 주춧돌 같은 인재로 일찍부터 기대를 모았으며, 나중에는 은둔하시어 진리의 수양에 힘쓰셨다. 그러한 분 오늘 또 잃었으니, 큰 덕 성취하려면 또 누구에게 의지해야 하겠습니까?<sup>21)</sup>

라고 하였고, 이정의 제자 順天 思馬所 生員 許思曾이 쓴 제문을 보면,

슬프도다! 선생께서는 道에 근원을 두시고, 퇴계선생을 스승 삼고, 寒暄堂 金宏弼 선생의 학술을 이어받았다. 敬으로 그리함을 근본을 삼고 誠으로 그리함을 보존하였다. 보람은 오직 마음의 본체를 인식하고 몸을 수양하는 心學에 두었으며, 뜻은 성인의 도를 돈독히 하는데 두었습니다.<sup>22)</sup>

19) 『龜巖集』 卷2, 附錄, 續集, 挽[門人 生員 柳渥], “… 撫衣廿載賴提撕, 誘掖諄諄指我迷, 爲已先要明敬義, 教人更竭叩端倪, 淵源濂洛諸君子, 師友眞城李退溪, 豈意斯文連不幸, 獨憐寒月照巖棲”.

20) 『龜巖集』 卷2, 附錄, 續集, 挽[邊士貞], “天意將何作, 斯文降喪連, 後生無處托, 吾道益堪憐, 泗上風猶慘, 龜棲月獨娟, 八門精爽緬, 挽絀涕潸然”.

21) 『龜巖集』 卷2, 附錄, 續集, 挽[門生 生員 姜愈], “吾道其南矣, 退溪傳泗濱, 文章奚足事, 忠孝乃誠純, 柱石曾推望, 林泉竟養眞, 斯人今又喪, 考德更誰因”.

22) 『龜巖集』 卷2, 附錄, 祭文[順天 司馬所 生員 許思曾], “嗚呼先生, 道有淵源, 師友退溪, 祖述寒暄, 敬以本之, 誠以存之, 功專心學, 志篤聖門, 繼前開後, 德盛道尊”.

라고 하였다. 이정이 사망한 때는 ‘진주옥사’가 일어난 지 3년이 지난 시점으로 남명이 이정과 절연한 이후였다. 이정의 제자 허사증은 이정이 퇴계를 스승으로 하여 김굉필의 학술을 이어받아 성리학의 도통의 맥을 잇고 있다고 하였다. 이정의 제자들은 이정을 퇴계의 학맥을 사천에 전하였을 뿐 아니라 김굉필에서 퇴계로 이어지는 도통의 맥을 이은 인물로 인식하고 있었던 것이다.

이정 사후 40년이 지난 1611년(광해군 3)에 사천의 유림은 이정의 고향 마을에 사당을 세워 ‘龜山祠’라고 이름을 짓고 그를 제사지냈다.<sup>23)</sup> 이때 이정 선생의 위패를 모시고 그를 배향하면서 月沙 李廷龜(1564~1635)가 龜巖書院 奉安文을 지었다.<sup>24)</sup> 그리고 龜巖書院에서 춘추로 이정을 배향하면서 晚全堂 洪可臣(1541~1615)이 春秋 享告文을 지었다.<sup>25)</sup> 사천 구암리에 사당을 세우고 이정을 배향하는 일이 그가 사망한 지 40년이 지나서야 가능했던 것을 통해서도 이정의 후학이 사천지역에서 확고하게 자리 잡지 못하였음을 알 수 있다.

이정이 1569년에 ‘龜巖精舍’를 지어 후학을 가르치기 시작한지 2년 만에 사망하자 ‘구암정사’는 제 기능을 못하였다. 그러다가 1611년에 ‘龜山祠’를 지어 그동안 제 기능을 하지 못하던 ‘龜巖精舍’에 선생을 배향하는 사당을 추가하고 ‘龜巖書院’으로 정비하여 서원으로서의 면모를 갖추었던 것을 알 수 있다.

1611년 ‘龜巖書院’이 건립된 이후 『구암집』 원집을 초간한 1641년에도

23) 『龜巖集』 卷2, 附錄, 續集, 龜山祠神道碑銘(許穆), “...先生姓李氏, 諱楨, 字剛而, 號曰龜巖先生, 先生生於正德七年, 卒於隆慶五年, 萬曆三十九年, 鄉人立祠故里, 命曰龜山祠, 仍刻石其事, 銘曰, 冥勤於水而祀, 龍勤於土而祀, 惟先生教及於後世, 是宐報食於千禩萬禩, 後學陽川許穆, 撰因謹書, 崇禎十八年二月日立”.

24) 『龜巖集』 卷2, 附錄, 龜巖書院奉安文(李廷龜), “瑚璉之器, 挺生南紀, 家傳孝友, 世篤忠義, 早事主庵, 學有淵源, 晚從陶山, 得聞微言, 勇退名羈, 適意丘園, 函丈依歸, 發輝講論, 行休既正, 踐履斯篤, 高風立懦, 百代矜式, 於血新字, 籩豆有儀, 庶幾昭格, 以寓興思”.

25) 『龜巖集』 卷2, 附錄, 春秋享告文(洪可臣), “於戲先生, 維學之博, 維道之聞, 維專忠孝, 維振斯文”.

‘龜巖書院’으로 불렸다. 1641년 『구암집』 원집 초간본의 간기에는 구암서원에서 초간본을 간행하였다고<sup>26)</sup> 기록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런데 金允安(1562~1620)은 龜山書院 上樑文을<sup>27)</sup> 지었다. 김윤안이 龜山書院 上樑文을 지은 시기는 작자의 나이를 고려하면 이정이 처음 구암정사를 지었을 때인 1569년에 쓴 상량문은 아니다. 그렇다면, 구산서원과 구암서원은 같은 시기에 異稱으로 사용되었다고 할 수 있다.

사천의 유림이 이정을 추송하는 활동은 이후 30년이 더 지난 1645년(인조 23)에 眉叟 許穆이 이정의 廟堂인 龜山祠院庭에 龜山祠碑를 세우는 것으로<sup>28)</sup> 이어진다. 허목은 17세기 중후반에 퇴계·남명·서애·한강·여헌·동계·우복 이후 영남과 京南을 막론하고 양쪽의 선배 문자를 총 정리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그는 영남 명현들의 문집 서문과 묘비문을 비롯하여 서애·오리·한음의 유사 및 가·서·발문 등을 많이 남겼다.<sup>29)</sup>

뿐만 아니라 허목의 두 동생 중 바로 아래 동생이 許懿인데, 그의 아내가 龜巖의 4世孫인 國子進士 李大一의 딸이다.<sup>30)</sup> 허목의 동생이 이정의 증손서가 되는 것이다.<sup>31)</sup> 그리고 『구암집』 원집의 간기에 따르면 李鯤變의 네 아들 大一, 次一, 協一, 涵一 가운데 涵一이 1641년 『구암집』 원집을 초간할 때 書寫의 일을 맡았다.<sup>32)</sup> 구암의 현손들이 『구암집』 간행을 추진하면서 구

26) 1641년 『구암집』 原集 초간본 마지막장에 “書寫 庶曾孫 李涵一 齋有司 白瑞翰 文集修正有司 白瑞羽 崇禎 十四年 正月 日 泗川 龜巖書院開刊”이라는 간기가 있다.

27) 『龜巖集』 卷2, 附錄, 續集, 龜山書院上樑文(金允安).

28) 『龜巖集』 卷2, 附錄, 續集, 龜山祠神道碑銘(許穆), “...先生姓李氏 諱楨 字剛而 號曰龜巖先生 先生生於正德七年 卒於隆慶五年 萬曆三十九年 鄉人立祠故里 命曰龜山祠 仍刻石其事 銘曰 冥勤於水而祀 龍勤於土而祀 惟先生教及於後世 是宜報食於千禩萬禩 後學陽川許穆 撰因謹書 崇禎十八年二月日立”.

29) 李樹健, 「龜巖 李楨의 家系와 生涯 및 ‘退南’과의 關係」, 『구암사상 학술집』, 사천문화원, 2005, 23쪽.

30) 『記言』 권42, 許氏先墓碑文, 許松禾葬銘, “亡弟諱懿 字仲徽 ...吾先考嫡子三人 君爲仲子 ... 妻泗川李氏 龜巖李副提學楨之四世孫 而國子進士大一之女 有至性善行 無子死 而又其家絕祀 臨死 乞葬於其先人之次 爲所後子托焉”.

31) 李楨 → 李應寅 → 李鯤變 → 李大一로 가계가 이어진다.

32) 『구암집』 원집의 마지막장에 “書寫 庶曾孫 李涵一 齋有司 白瑞翰 文集修正有司 白瑞

암의 曾孫婿인 許懿를 통해 당대에 영남 명현들의 문집 발간에 중요한 역할을 하던 허목의 도움을 받았을 것으로 보인다.

허목은 구암의 신도비명을 지었을 뿐 아니라 1641년 『구암집』 원집을 처음 간행할 때 발문을 썼으며, 자신과 친분이 있던 용주 조경으로 하여금 『구암집』의 서문을 쓰도록 하였다.

‘진주옥사’ 이후 남명이 이정을 배척하였고, 이 일은 정치적으로 비화되어 남명의 제자인 鄭仁弘이 더욱 이정을 비판하였다. 이후 이정의 손자 이곤번이 그 조부의 결백함을 밝히기 위해서 ‘拙辨’을 짓고, 남명의 손자 曹浚明이 이를 반박하는 ‘反辨’을 짓는 등, 두 사람의 사후에도 이 사건으로 인해 양쪽 집안과 지역의 대립이 계속되었다.

남명은 옛날의 이른바 高士라 하겠소. 그가 만약 세상에 있다면 나 또한 한번 만나 보아 그 사람 됨됨이를 알고자 하겠지만, 더불어 벗어나는 것이라면 나는 하지 않을 것이요. 이에 비해 龜巖은 옛날의 어진 대부로서 예를 알고 옛도를 좋아하는 사람이었소. 두 사람을 비교하면 남명은 고상하고 구암은 고상하지 않으며, 남명은 기이하고 구암은 기이하지 않소. 인정은 누구나 기이함을 좋아하고 고상함을 숭상하는 법이요. 그러나 구암은 폐단이 없었소. … 남명이 구암을 배척한 뒤로부터 정인홍이 구암을 공격하는 데 얼토당토않은 말을 꾸며 내어 못하는 말이 없었으니, 이것은 사람들이 모두 아는 사실이요. 그는 생짜로 선량한 사람을 모함하고 해쳐서 자신의 뜻을 통쾌하게 하려 하였소.<sup>33)</sup>

허목은 남명과 이정의 갈등 관계에 대해 위의 자료에서 보듯이 이정에 대해 우호적인 태도를 취하였다.

허목의 학통은 변암 채제공(1720~1799) 단계에서 정립된 李滉-鄭述-許

---

羽 崇禎 十四年 正月 日 泗川 龜巖書院開刊”이라는 간기가 있다.

33) 『記言』別集 권6, 書牘2, 答學者, “然南冥者, 古之所謂高士, 若其人在世, 吾亦願見而一識其爲人也, 然與之友則吾不爲也, 龜巖, 古之賢大夫之知禮好古者也, 視二人則南冥高, 龜巖不高, 南冥奇, 龜巖不奇, 人情莫不好奇而慕高也, 然龜巖無弊, … 自南冥之絕龜巖, 仁弘之所以攻龜巖者, 造飾辭說, 不近不似, 無所不至, 此衆人所知也, 其生陷害良善, 意欲快矣”.

穆-李灝의 근기남인의 道統論에 의거하는데, 이 도통론의 핵심은 ‘정구-허목’연결이라 하겠다. 기존 연구에서 허목을 정치적으로 영남남인과 근기남인을 연결하고 학문적으로 성리학의 영남남인과 실학의 근기남인을 잇는 가교 역할을 한 것으로 평가한 것은 이를 잘 입증해준다.<sup>34)</sup>

또한 龜巖書院에서 춘추로 이정을 배향하면서 春秋 享告文을 쓴 洪可臣은 허목, 조경과도 각별한 친분이 있었다. 홍가신의 문집 『晩全集』의 서문을 許穆이 쓰고, 趙綱이 홍가신의 ‘神道碑銘’을 쓴 것을 보면 알 수 있다. 이들은 모두 남인 학자로 퇴계의 학맥을 잇는 인물인 것을 통해 이정 사후 추송활동은 주로 퇴계의 학맥을 잇는 남인 학자들이 중심이 되어 진행하였음을 알 수 있다.

사천의 후학들은 이정 사후 40년이 지난 1611년에 사당을 건립하여 그를 배향하였으며, 이때 龜巖書院을 창건하여 서원으로서의 면모를 갖추고 그의 학맥을 이어갔다. 이때 이정의 제자 허사증은 이정이 퇴계를 스승으로 하여 김굉필의 학술을 이어받아 성리학의 도통의 맥을 이었다고 하였다. 즉 구암의 제자들은 이정을 퇴계의 학맥을 사천에 전하였으며 김굉필에서 퇴계로 이어지는 도통의 맥을 이은 인물로 인식하고 있었던 것이다. 이후 1645년(인조 23)에 許穆이 龜山祠院庭에 이정의 神道碑인 龜山祠碑를 세워 이정이 퇴계의 학맥을 계승하였음을 분명히 하였고, 그를 추송하는 작업이 일단락되었다.

## 2. 龜溪書院 사액과 金德誠 追享

사천지역 이정의 후학들은 1611년에 ‘龜山祠’와 ‘龜巖書院’을 건립하여 이정을 추송하는 것을 시작으로 1641년에 『구암집』 원집을 發刊하고 1645년

34) 이동인, 「근기남인 道統論의 이해와 허목 古學의 연원」, 『조선중기 홍가신 허목의 사상과 학문』, 수원화성박물관, 2012, 105쪽.

(仁祖 23)에 龜山祠院庭에 神道碑까지 세움으로써, 이정 사후 70년이 지나서 이정을 추송하는 작업을 1차 완료하였다.

이후 사천에서 이정 선생을 추송하는 작업은 1675년(숙종 1) 구암서원에 사액을 청하는 일로 이어진다. 숙종 1년인 乙卯年(1675) 9월 15일에 사천의 幼學 白而章 등이 구암서원에 사액을 청하는 상소를 올렸다. 이에 同年 10월 4일에 예조판서 洪宇遠이 回啓하여 사액하기를 아뢰었다. 이때 洪宇遠은 이정의 업적을 몇 가지 들어서 임금에게 아뢰었다. 첫째, 이정은 시골벽촌의 학자로서 학문에 힘썼다. 둘째, 이황에게 배움으로써 『中庸』의 주해를 깊이 체득하고 행실이 바르고 성실하였다. 셋째, 중종·인종·명종 임금의 상을 치렀다. 넷째, 성균관 司成으로 있으면서 이황과 더불어 정·부직을 맡아 유교경전을 강론하여 성균관 선비들의 학문과 기예를 불러 일으켰다. 다섯째, 집안에 은둔하여 『易經』을 읽어 유학자들의 본보기가 되고 후학들을 가르쳐 사람들이 그를 그리워하였다는 내용이다.

이러한 노력의 결과 同年 10월 17일에 藝文館에서 올린 龜山, 萬竹, 龜溪 三望 가운데 龜溪로 賜額이 결정되었다.<sup>35)</sup> 다음해인 1676년(숙종 2) 4월에 숙종은 龜溪書院으로 사액하고 현관을 하사할 때 御製詩를<sup>36)</sup> 내려주었다. 이때 禮曹佐郎 柳英立이 구계서원에 와서 祭享하였는데, 제문이 『구암집』에

35) 『龜巖集』 卷2, 別集, 附錄, 龜溪書院請額實錄, “乙卯九月十五日, 泗川幼學白而章等, 上疏請額, 批曰 省觀多士之疏, 李楨若以居家篤學力行, 事君盡禮, 一出於至誠, 而斷無他腸, 則不可無立祠奉祀之地, 卽令該曹稟處焉, 十月初四日, 禮曹判書洪宇遠回啓, 觀此泗川幼學白而章等疏辭, 則蓋爲先儒副提學臣李楨祠宇請額之事也, 楨以遐鄉後學, 篤志力學, 學於先正臣文純公李滉, 渙得中庸之傳, 腳踏實地, 以聖賢自期, 歎四朝, 蹇蹇匪躬, 章奏之間, 必以格君心勉聖學爲先務, 事親至孝, 化行一鄉, 執喪哀毀 幾至滅性, 又服中·仁·明廟三大王喪, 其在司成, 與李滉得爲長貳, 相與講明經義, 庠舍之士, 多興於學藝, 宣廟初, 謝副提學, 召命, 上書因進勸戒, 皆格言至論, 杜門斂迹, 專精讀易, 足爲斯文之標的, 後學之指南, 士林仰止, 既有祠宇之建, 朝家褒獎, 宜副, 賜額之請是白乎矣, 事係 恩典, 自下不敢擅便, 上裁何如, 批曰, 向觀本疏, 今見回啓, 則李楨學問孝行, 至今稱慕, 如出一談, 不可無追後褒美之舉, 柝揭額號爲良如教, 十七日, 藝文館擬進額號三望, 曰龜山, 萬竹, 龜溪, 落點於龜溪”.

36) 『龜巖集』 卷2, 別集, 附錄, 御製詩, “天地茫無垠, 藐然有一身, 秉彝本自善, 物誘乃亡眞, 操舍毫釐判, 聖狂俄頃臻, 閑邪莫若敬, 克己日惟新”.

수룩되어 있다.<sup>37)</sup> 이 제문의 내용을 누가 지었는지는 확인할 수 없다. 그러나 이정이 퇴계 문하에서 程朱學을 계승하였다는 것과 그를 통해 성리학 서적이 조선에 전해졌다는 점뿐 아니라 그를 통해 주자학이 사천에 전해진 점 등이 언급되어 있다. 이외의 내용은 위에서 살펴본 예조판서 洪宇遠이 이정을 평가한 내용과 일맥상통한다.

숙종이 사제문을 내린 것은 이정이 사망하였을 때 선조 임금이 내려준 것에 이어 두 번째이다. 이정 사망 당시에 선조가 내린 사제문은 典翰 吳健이 짓고, 禮曹正郎 鄭彥信이 봉행하였다.<sup>38)</sup>

그리고 張應一(1599~1676)이 지은 ‘龜山書院 重創 奉安文’을<sup>39)</sup> 보면, 1676년 구계서원으로 사액을 받기 이전에 龜山書院을 중건하고 위패를 옮겨와 제사지냈음을 알 수 있다. ‘龜山書院 重創 奉安文’에 서원의 명칭을 구산서원이라 칭한 점과 장응일의 생몰시기를 감안하면, 구계서원으로 사액을 받기 직전 즈음에 새로이 서원을 重建하고 사액을 청하였음을 짐작하게 한다.

37) 『龜巖集』卷2, 別集, 附錄, 龜溪書院 宣額時 賜祭文 丙辰四月, “國王遣臣禮曹佐郎柳英立, 諭祭于副提學李楨之靈, 舊號我東, 文教邗隆, 式由列聖, 厚培儒風, 亦賴羣賢, 翊敷聖功, 瞻言顧懷, 肅焉起欽, 惟靈粹資, 軌道由心, 孝悌性得, 鄉黨行孚, 早從師門, 倚資藍朱, 發軔正路, 務極其趨, 亦既登朝, 礪操彌確, 陶山之學, 獨紹伊洛, 咨叩洪蘊, 辭明意博, 長貳成均, 教嚴道尊, 潛味奧旨, 洞究微言, 循本善推, 靡方不徹, 東都名迹, 諫垣風烈, 與夫玉署, 陳戒之疏, 篤厚切至, 今古誰如, 晚年告休, 灑然林壑, 一意興學, 益勤誘掖, 式隔羣蒙, 式開迷程, 由靈篤行, 喪祭禮明, 由靈嗜學, 性理書傳, 型範一世, 功施後千, 宏濶之量, 道德之全, 道學之方, 輔世之具, 永嘒時異, 緬然心注, 矧伊泗上, 染化最深, 有恤祠宇, 香火暨今, 肆徇羣情, 庸賁華額, 遣告明靈, 庶幾虔格”.

38) 『龜巖集』卷2, 附錄, 賜祭文 典翰吳健製進, 禮曹正郎鄭彥信行, “惟靈, 局量宏深, 風采嚴靜, 庸言必謹, 孝友其性, 應物有容, 持己以律, 根基確然, 輔以經術, 範家移忠, 能竭其力, 材屈割鷄, 志在留犢, 先立治綱, 右文崇德, 吏服其威, 民安其業, 遺愛在碑, 清風遠襲, 先后眷隆, 特賜華秩, 遂司喉舌, 旋長諫議, 詳其敷奏, 正其風旨, 爰歛大惠, 東都是理, 封植園陵, 亦仁者事, 湖界有邑, 世稱難治, 擊猾惠窮, 恩威并施, 建院象賢, 樹之風聲, 鏗梓羣書, 警進後生, 未待借寇, 遽罹荼毒, 遲爾服闋, 命爾經幄, 庶幾論思, 以補予闕, 卿不肯來, 邈矣難接, 一封奏疏, 都是血誠, 豈謂今日, 永隔儀刑, 念卿晚節, 方好問學, 家食多年, 志專窮格, 爲學之方, 致治之要, 必有神會, 所詣尤妙, 不見啓沃, 遽至於斯, 茲遣薄奠, 以寓予悲”.

39) 『구암집』 속집, 「龜山書院 重創 奉安文」(張應一).

이후 1723년(경종 3)에는 醒翁 金德誠(1562~1636)을 구계서원에 추향하였다. 김덕함은 성리학적 학문연원으로 퇴계나 이정과 직접 연관된 인물은 아니다. 하지만 그는 국가의 왕권보다는 왕실의 가족질서를 우선시하는 강력한 유교적 실천주의자로, 李恒福, 鄭弘翼과 함께 인목대비의 폐비에 반대하다 유배형을 받고 南海, 穩城을 거쳐 泗川에서 5년간 생활하였다.<sup>40)</sup>

…돌이켜 보건대, 여기 사천은 김덕함이 위리안치 되었던 곳입니다. 그가 6년간 귀양살이를 하면서 강마하고 가르쳐서 후학을 육성하여 바닷가 궁벽한 지역의 사람으로 하여금 학문을 하는 방법을 알게 하였으니, 신들이 현인을 사모하는 정성은 정말로 하늘에서 타고난 성품에서 나왔습니다. 그래서 김덕함을 이정의 사당에 並享하고자 발을 싸매고 천 리를 달려와 구중궁궐의 아래에서 우러러 칭하오니, 옆드려 바라건대, 有司에 하명하여 속히 병향의 恩典을 거행하여 주소서.’라고 하였습니다. 김덕함의 높은 절개와 깊은 학문을 후학이 높이 추대하며 우러르고 있으니, 보고 느끼어 흥기하는 바가 다른 지역에 비할 바가 아닐 것이므로 이번에 유생들이 칭찬 것은 간절한 성의에서 나온 것입니다. 그리고 옛날 서원에 추후로 배향하는 것은 새로 창건하거나 중복해서 건립한 경우와 다르니, 그들의 상소 내용대로 시행하도록 허락하시는 것이 마땅하겠습니다. 그렇지만 이는 賜額書院에 관계되는 일이므로 臣의 曹에서 감히 마음대로 처리할 수 없으니, 임금께서 裁決하시는 것이 어떠하겠습니까?”라고 하였다. 雍正 원년(1723) 3월 26일에 右丞旨 臣 朴熙晉이 담당하였는데, 回啓한 대로 시행하라고 啓下하였다.<sup>41)</sup>

위 기록에서 알 수 있듯이 金德誠은 仁穆大妃의 廢母論을 반대하다 1617년(광해군 9) 12월에 南海에 定配되었다가 온성으로 移配되었다. 다음해인 1618년에 사천에 이배되어 1623년 인조반정으로 解配되기까지 5년 동안 귀

40) 박병런, 「醒翁 金德誠의 관료적 생애와 정치적 활동」, 『구암사상 학술집』, 2013, 452~454쪽.

41) 『書院謄錄』, 景宗 3년(1723) 3월 26일(『승정원일기』 542책(탈초본 29책) 경종 2년(1722) 7월 18일에 사천의 구계서원 院生 崔應井 등이 李楨을 배향한 龜溪書院에 金德誠을 追享하게 할 것을 청하는 상소가 수록되어 있는데, 이후 논의를 거쳐 경종 3년(1723)에 金德誠을 追享하였음을 알 수 있다.

양살이하였는데, 이때에 사천에서 학문을 흥기하는데 기여하였다. 金德誠을 구계서원에 추향한 것을 통해 사천의 유림이 궁벽한 바닷가에 유학의 학문적 기반을 유지하기 위해 애쓴 노력이 구계서원을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었음을 알 수 있다.

### 3. 諡號 요청과 大觀臺 重建

이후 이정을 추송하는 일은 諡號를 청하는 것으로 이어졌다. 시호를 청하는 글은 李家淳이 丙申年에 지었다. 여기에는 1676년 예조좌랑 柳英立이 와서 祭享할 때 숙종 임금이 내린 사제문의 내용이 언급되어 있고, 1785년(정조 9)에 편찬된 『大典通編』을 언급하기도 하였다.<sup>42)</sup> 게다가 시호를 청하는 글을 지은 李家淳(1768~1844)의 생몰 년대를 감안해보면 이기순이 시호를 청한 丙申年은 1836년(헌종 2)임을 알 수 있다.

李家淳은 이정의 諡號를 청하는 글에서 퇴계의 으뜸가는 제자로 이정을 평하고 있다. 그리고 이정이 초년에는 송인수에게 수학하였으며 퇴계와는 도의의 연분을 맺었다고 언급하였다. 이기순은 퇴계의 9대손으로 1902년 『구암집』 중간본의 발문을 쓴 향산 李晚燾(1842~1910)의 祖父이다. 퇴계의 후손이 이정의 시호를 청한 것을 보면, 19세기 초반에도 영남 남인들에게 이정은 퇴계의 학맥을 이은 중요한 인물로 인식되고 있었음을 알 수 있다. 그러나 이때 시호가 내려지지는 않았는데, 정확한 이유는 알 수 없으나 19세기 초반에는 노론이 정국을 장악한 때문으로 그 이유를 추정할 수 있을 것이다.

조선후기에 기호와 영남유림은 다양한 학파와 지역으로 서로 분열되어 학술 활동과 사회활동을 해 왔다. 그러다가 개항 이후 열강의 침략이 현실로 다가오자 반외세라는 공동 목표를 설정하고 투쟁해 나가는 과정에서 학문적

42) 『구암집』 「별집」, 請諡疏丙申(李家淳), “… 竊伏念儒賢之不拘資格 特許 賜諡 載在大典通編 …”.

교류를 확대하고 지역성과 당파성을 점차 극복하면서 하나로 통합되어 나갔다. 마침내 1919년 郭鍾錫을 중심으로 우리 민족의 독립을 위하여 영남유림은 물론 전국의 유림이 하나로 통합되어 나갔다.<sup>43)</sup>

이러한 맥락에서 19세기 초 영남 유림은 선현을 추모하는 사업을 전개하였고,<sup>44)</sup> 19세기 江右 학자들은 그 학맥의 연원이 柳致明, 許傳, 奇正鎭 등 다양하였으나 학파를 초월하여 남명 사상을 연구하고 계승해 나갔다.<sup>45)</sup> 그것은 1883년 허전이 유림을 대신하여 남명을 문묘에 종향하기를 청하는 상소를 올리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남명 사상을 올바르게 선양하기 위하여 『남명집』 간행을 추진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1894년부터 1897년에 걸쳐 편찬된 『남명집』의 간행은 남명 사상을 성리학의 관점에서 간행하기 위한 것이었으며, 그러한 역할은 許愈, 郭鍾錫, 鄭載圭 등이 주도하였다.<sup>46)</sup>

또한 영남 학계에는 理學에 대한 講論이 활발해졌다. 柳致明은 1846년(헌종 12)과 1856년(철종 7)에 高山書院과 虎溪書院에서 수백 명의 유생이 참여하는 講會를 주도하였고, 1850년(철종 1)에 李漢鷹은 吾山堂[淸涼精舍]에서 600여명이 참여한 대규모 강회를 개최하여 이학에 관련된 주요 서적과 개념에 대해 강론하였다.<sup>47)</sup> 영남유림이 선현을 선양하는 사업은 위정척사 운동과 항일운동으로 이어졌으며, 20세기 초에는 儒林의 독립운동으로 전개되었다.

43) 권오영, 「19세기 초 안동유림의 유회와 활동」, 『조선후기 유림의 사상과 활동』, 돌베개, 2003.

44) 19세기 초 영남유림의 활동은 선현을 추모하는 사업을 활발히 벌였다. 특히 안동지역 유림들은 顯祖나 스승, 그리고 이름난 선배 학자들의 문집을 간행하거나 사당을 건설하고 정자를 세우는 등 여러 가지 사업을 많이 추진하였다. 그것은 정치적 돌파구를 찾지 못한 재야 유림이 儒會를 통하여 이러한 사업을 행함으로써 자신들의 입지를 확보하는 수단으로 삼고자 했던 것이다(권오영, 「19세기 초 안동유림의 유회와 활동」, 『조선후기 유림의 사상과 활동』, 돌베개, 2003, 295쪽).

45) 권오영, 「19세기 강우학자들의 학문 동향」, 『조선후기 유림의 사상과 활동』, 돌베개, 2003, 456쪽.

46) 권오영, 「19세기 강우학자들의 학문 동향」, 『조선후기 유림의 사상과 활동』, 돌베개, 2003, 465~466쪽.

47) 권오영, 「19세기의 嶺南學界와 侏宇 郭鍾錫의 理學」, 『남명학연구』28, 2009, 27쪽.

사천지역 유림이 전개한 선현을 추모하는 사업은 1869년(고종 6) 구계서원이 훼손된 뒤에 서당으로서의 기능만 유지한 ‘大觀臺(齋)’를 辛丑年(1901)에 重修함으로써 이정의 학맥을 계승하는 것으로 전개되었다. 宋秉璿(1836~1905)이 쓴 ‘大觀臺重修記’에 따르면,<sup>48)</sup> 송병선은 이정의 후손인 泰煥, 洪翼이 崔圭敏, 崔孝習과 함께 대관대가 허물어진 것을 보고 이미 중수를 마쳤으며, 重光赤奮若坤之上漸에 중수기를 썼다고 하였다. ‘重光赤奮若’이 辛丑年이므로 1901년(辛丑)에 대관대를 중수하였음을 알 수 있다.<sup>49)</sup>

大觀臺 重修는 사천지역 유림이 ‘大觀臺儒契’를 만들어 이정을 배향하는 일련의 활동과 연계되어 진행되었다. 사천지역의 유림은 20세기 초에 ‘大觀臺儒契’를 결성하고 대관대를 중수하여 滄洲精舍에서 釋菜를 행하는 예에 따라 이정을 배향하였다.<sup>50)</sup> 사천지역 유림은 이정을 배향할 때 朱子가 창주정사를 창건하고 釋菜의 禮를 행한 것과 같이 함으로써 사천에 유학의 학풍을 일으켰다. 이후 1902년에는 퇴계의 후손인 響山 李晚燾(1842~1910)가 발문을 써서 『구암집』 중간본을 간행하였다.

대관대유계의 결성과 관련된 내용은 ‘大觀臺儒契案’을<sup>51)</sup> 통해 자세히 알 수 있다. 대관대유계안에는 崔圭敏과 河珽運이 甲辰年(1904)에 쓴 서문이 각각 수록되어 있고, 壬子年(1912)에 李忠鎬가 쓴 서문과 李泰煥이 쓴 발문이 수록되어 있다. 특히 하정운이 쓴 서문에 따르면,<sup>52)</sup> 사천지역 유림은 更子年

48) 『구암집』 별집, 大觀臺重修記, “... 曰 公後孫泰煥, 洪翼與崔生圭敏, 孝習, 以臺之頽落, 既已重修之, 且公嘗師圭庵先生, 而以余爲先生傍裔, 來徵其記, 余今老耄矣, 不能復登是臺大觀, 而終於小觀而已矣, 噫, 時重光赤奮若坤之上漸, 恩津宋秉璿, 記”.

49) 『구암집』 別集에는 松谷 柳世彰(1657~1715)이 쓴 ‘大觀臺重修上樑文’이 수록되어 있다. 그의 생몰년대를 보면, 1901년 이전에 한차례 大觀臺가 重修되었음을 짐작할 수 있다.

50) 『大觀臺儒契案』, 大觀臺儒契案序, 凡例, 一. 釋菜儀, 做滄洲精舍古禮事. 滄洲精舍 釋菜禮는 1194년 朱子가 滄洲精舍를 짓고 先聖과 先師를 배향하고 서당이 이루어진 것을 告由하며 올린 예이다.

51) 국립중앙도서관에는 1912년에 李泰煥이 編하여 목활자본으로 간행한 大觀臺儒契案을 소장하고 있다(古3643-462).

52) 『大觀臺儒契案』, 「大觀臺儒契案序」, “... 肆庚子冬, 道會也, 齊發修契之的論, 越明年, 仲春, 修定契帖, ... 甲辰, 暮春節, 晉陽, 河珽運序”.

(1900) 겨울 道會를 열고 계를 만들기로 하였고 다음해 봄에 契帖을 만들고 儒契를 결성하였다고 하였다.

그런데, 1904년과 1912년에 쓴 서문이 있고, 발문을 1912년에 작성한 것을 보면 유계가 완성된 것은 1912년으로 볼 수 있다. 儒契案에 들어있는 인명록은 여러 차례 걸쳐 추록이 되어 있는데, 崔圭敏의 이름을 시작으로 모두 673명의 이름이 등재되어 있다.<sup>53)</sup> 그러나 1902년에 대관대를 중수하고 『性理遺編』과 『구암집』을 重刊하는 일련의 사업을 대관대유계가 중심이 되어 진행한 것을 보면, 대관대유계는 1901년 봄에 결성되어 실질적인 활동을 하였음을 알 수 있다.

여기서 1912년에 대관대유계안 서문을 쓴 李忠鎬와 大觀臺 重修記를 쓴 宋秉璿이 주목된다. 李忠鎬는 퇴계 주손 李中慶의 아들로 호는 霞汀이고 퇴계의 13세손이다. 그리고 宋秉璿은 본관은 恩津, 호는 淵齋로 尤庵 宋時烈的 9대손으로 權尙夏와 韓元震의 학맥을 잇는 湖學의 학통을 이어받았다. 19세기 후반기 대내외적인 위기에 봉착한 조선말 도학자들 사이에는 우리 민족의 역사에 대한 관심과 ‘유학사’에 대한 정리를 하는 학문적 경향이 나타났다. 그 가운데 대표적인 도학자가 바로 淵齋 宋秉璿(1836~1905)이다.<sup>54)</sup> 이렇듯 20세기 초에 사천에서 이정을 추승하는 작업을 주도한 인물은 퇴계의 후손과 송시열의 후손임을 알 수 있다.

20세기 초에 퇴계의 후손이 이정을 추승하고 사천지역 유풍을 일으키는데 중요한 역할을 한 것은 퇴계의 후손이 이정을 퇴계의 제자로서 스승의 학맥을 이었음을 인정한 것이라 하겠다.

---

53) 大觀臺儒契의 결성과정과 결성목적에 대한 연구는 이은식의 연구를 참조할 수 있다 (이은식, 「대관대 유계의 성립과 흐름」, 『구암사상 학술집』, 2013, 488~532쪽).

54) 정성희, 「19세기 조선 유학사 정리 작업에 대한 연구-宋秉璿의 성찰적 조선유학사 정리 작업을 중심으로-」, 『유학연구』28, 2013. 송병선은 조선에서 통사적 유학사라고 할 수 있는 최초의 저술이라 할 수 있는 『溟東淵源錄』을 1881년에 편찬하였고, 조선 도학을 대표하는 조광조, 이황, 이이, 김장생, 송시열의 사상을 발췌하여 편집하여 『근사록속』을 편찬하기도 하였다. 송병선은 1905년 을사조약이 체결되자 상소를 통해 조약의 파기와 5적 처단을 요구하고 자결한 순국지사이자 항일운동가이다.

송시열의 후손이 이정을 추송하는 일에 중요한 역할을 한 이유는 이정이 사천에 귀양 온 宋龜壽에게 수학했기 때문인데, 송인수는 송시열의 증조인 宋龜壽의 형이다. 宋時烈(1607~1689)은 송인수가 사천에서 귀양살이하면서 자제들을 모아 가르칠 때 龜巖 李楨이 그중에서도 가장 잘 배워 명사가 되었다고 하였다.<sup>55)</sup> 송시열이 송인수의 諡狀에서 구암을 들어 규암 행적을 칭찬하고 있는 것은 구암을 높이 평가했기 때문이다. 뿐만 아니라 李宜顯(1669~1745)의 문집인 『陶谷集』에서 사천의 제일 인물로 구암을 손에 꼽고 있으며,<sup>56)</sup> 李萬敷(1664~1732)의 문집인 『息山集』에서는 퇴계의 인정을 받은 제자로 구암을 언급하고 있어서<sup>57)</sup> 구암을 당대 최고로 품평하고 있다.<sup>58)</sup> 구암의 교유나 사승관계에 대한 언급은 주로 규암 송인수를 언급하면서 등장한다. 즉 송인수라는 인물을 설명할 때, 구암을 제자로 두었다는 것을 강조한 것이다.

송시열이 송인수의 제자로서 구암의 위상을 부각한 것은 조선후기 사회에서 퇴계의 학맥을 이은 구암이라는 상징성, 즉 퇴계의 학맥이 미치는 사회적 영향력과도 관련이 있을 것이다. 뿐만 아니라 17세기의 학자들이 퇴계와 송인수의 제자로서 구암을 높이 평가한 것은 송시열의 영향력이 가지는 당시의 정치사회적 함의 또한 지닌다고 할 수 있다. 조선후기 유학사에서 퇴계는 이미 굳건한 학문적 위상을 차지하고 있었기에, 노론의 정치사회적 영향력

---

55) 『宋子大全』 卷202, 諡狀, 圭菴宋先生諡狀, “安老誦講成獄, 遂竄泗川, 泗濱海, 俗尙質實, 先生日聚其子弟, 教誨不倦, 如李龜巖楨輩, 最蒙其獎進而成名焉”.

56) 『陶谷集』 卷28, 雜著, 陶峽叢說 一百四則, “祖宗朝, 兩南人物, 最多登顯, 慶州則李晦齋彥迪, … 禮安則李退溪湜, 李韞巖賢輔, 趙月川穆, 安陰則林葛川薰, 鄭桐溪蘊, 漆原則周楨齋世鵬, 山陰則吳德溪健, 泗川則李龜巖楨”.

57) 『息山集』 卷18, 題跋, 退陶淵源筆帖跋, “吾東道學之傳, 昉於麗末, 延及我朝, 寒, 蠹躬修而未教, 靜, 晦少施而大弊, 至退陶先生, 其力久, 故其成大其源深, 故其流遠, 門下之士, 莫盛於陶山講道者也, 月川自少從先生學, 於門人年最長, 先進高峰, 遇先生稍後, 然先生所與往復相講最盛, 德溪出自山海門下, 然先生許其朴實懇篤, 其次龜巖, 藥圃, 錦溪, 栢潭諸公者, 或以文學或以行誼稱, 如西厓, 鶴峰, 最後進而同時出者”.

58) 백운용, 「문집에 실린 “구암 이정” 관련 기록의 양상」, 구암학술대회, 사천문화원, 2018년 11월 24일, 44~4쪽.

아래 노론 일각에서 송시열의 학맥을 퇴계와 연결하기 위한 연결점으로 송인수와 이정의 관계에 주목한 것이다.

이러한 경향은 19세기말 20세기 초에도 나타나는데, 1902년에는 퇴계의 후손인 李晩燾(1842~1910)가 발문을 써서 『구암집』 중간본을 간행하였고, 송시열의 후손인 송병선은 1907년에 송인수의 문집인 『圭菴集』을 간행하였다.

이렇듯 20세기 초에 퇴계의 후손과 송시열의 후손이 구암 이정을 사천지역의 퇴계 학맥을 잇는 대표적인 학자로 위상을 세웠음을 알 수 있다.

### III. 『구암집』의 간행<sup>59)</sup>

#### 1. 1641년(인조 19) 『구암집』 原集 간행

사천지역 이정의 후학들이 스승을 추승하고 그의 학문을 계승하는 일련의 과정에서 스승의 문집을 간행할 필요가 절실하였을 것이다. 이에 이정이 사망한 지 70년이 지난 1641년(인조 19)에 마침내 선생의 遺文들을 모아 구암서원에서 『구암집』 原集을 刊行하였다.<sup>60)</sup> 이때 序文은 1639년(인조 17)에 龍州 趙綱(1586~1669)이 짓고, 跋文은 1640년(인조 18)에 眉叟 許穆(1596~1682)이 지었다.

허목은 구암의 신도비명을 지었을 뿐 아니라 1641년 『구암집』 원집을 간행할 때 발문을 썼으며, 자신과 친분이 있던 용주 조경으로 하여금 서문을

59) 본 연구는 사천문화원 소장 『구암선생문집』을 底本으로 함(사천문화원 소장본은 원집 초간본(1641년 刊)은 국립중앙도서관 소장본(의산古3648-62-304)과, 속집 초간본(1749년 刊)은 고려대학교 도서관 대학원 소장본(D1-A747a 冊1), 1902년 重刊본은 국립중앙도서관 소장본(古3648-62-519)과 동일한 판본이다. 본고 2장에서는 『구암집』 간행과정을 검토하는 것에 한정하고, 문집의 내용에 대한 검토는 후속 연구를 통해 밝히고자 한다.

60) 1641년 초간본 원집의 마지막장에 “書寫, 庶曾孫, 李涵一, 齋有司, 白瑞翰, 文集修正有司, 白瑞羽, 崇禎十四年正月日, 泗川, 龜巖書院開刊”이라는 간기가 있다.

쓰도록 하였다.<sup>61)</sup> 따라서 『구암집』 원집을 간행하는 데에는 허목의 편집 방침이 그대로 반영되었다고 하겠다.

『구암집』 原集의 간행과정을 좀 더 살펴보자. 원집 초간본 말미에 기록된 간기에 원집 초간본은 이정의 庶曾孫인 李涵一이 書寫하고, 儒生 白瑞羽, 白瑞翰 등이 수정하여 1641년 1월 龜巖書院에서 간행하였다고 하였다.

서문을 지은 趙綱은 당대 南人의 대표적인 학자관료로, 1636년(인조 14) 司諫院 司諫이 되어 직언을 하다가 투옥되기도 하였고, 병자호란이 일어나자 斥和를 주장하였다. 1639년(인조 17) 4월에 사간원 사간에 임명되었으나 관직을 그만두고 거창으로 돌아갔다가 다음해 사간에 임명되었다. 『구암집』의 서문을 쓸 당시에 조경은 거창에 머무를 때였는데, 그는 서문에서 이정이 퇴계 문하에서 중요한 위치에 있었음을 곳곳에 표현하였다.

천하의 학문이 여러 갈래로 나누어 진 지가 오래되었다. ... 대체로 유학의 도에 대한 숭상에서는, 도산서원에서 예를 다해 퇴계선생을 모심으로써 모든 사람들로 하여금 삼가 모범으로 삼게 한 것이었다. ... 금년 가을에 陽川 출신 許穆이 사람을 시켜 사천지방으로부터 수백리 길을 내가 사는 이곳 娥林(거창)에 보내어 구암 문집을 나에게 보이면서 서문을 부탁했으나 나는 그럴만한 사람이 아닌 까닭에 사양하지 않을 수 없었다. 그러나 문집 속에서 공의 행실을 가만히 살펴보니, 구암 공은 20세 전에는 圭庵 宋麟壽 선생을 스승으로 받들었으며, 조정의 관리에 이르렀던 분이였다. 또한 태학에서는 퇴계선생을 모시면서 자신을 돌보지 않고 힘써 의지했으니, 퇴계선생의 문하에서 배우는 자 중에서 누가 이에 미칠 수 있겠는가? 이 문장 또한 내가 즐겨보았던 바로 그 문장이니, 아아! 성대하도다. ... 사천지방은 남해 끝자락의 해안지방으로서 학문을 도외시키고 무예를 숭상했음은 예로부터 내려오는 기록이었다. 구암 공 홀로 맑고 깨끗한 기운을 가지고 내어나 일찍이 어린 시절부터 한 도의 진사 시험에 재주를 드러내었다. ... 구암 공은 가히 퇴계선생이 얻은 보배로운 구슬이라 할 수 있을 것이다. ... 지금 공이 돌아가신지 60년이 넘었으나 사천지방의 학자들이 공의 덕을 연모함은 처음과 다름없으니, 이미 학당에서 제사지

61) 『龜巖集』, 권1, 龜巖集序(趙綱), “今年秋, 陽川許熙和氏自泗濱走人數百里外以來娥林, 以龜巖文集示綱, 問弁首之文於綱”.

내왔으며, 전란 속에서 남은 유고를 모아 문집을 간행하여 후세에 전하러 하니 매우 훌륭한 계획이라 할 수 있다. 許穆이 타향에서도 또한 이 일을 맡으니, 전대의 현인을 존경하고 그리워함은 실로 한 마음이어서, 진실로 사람을 일으키는 바가 있으니 함께 쓸 수 있을 것이다.<sup>62)</sup>

위와 같이 『구암집』 서문에서 조경은 유학의 도가 퇴계에게 전해졌다는 것과, 이정이 학문이 도외시되던 사천에 퇴계학을 전하였으며 이정이 퇴계 문하의 뛰어난 학자라는 점을 드러내었다. 그리고 이정 사후 60년이 넘었으나 사천지방의 학자들이 그의 덕을 연모함이 처음과 다름없다고 하여 사천 지역에 퇴계의 학맥이 이어져 오고 있음을 분명히 하였다. 조경은 『구암집』의 서문에서 이정이 사천지역에 퇴계의 학문을 전하였으며, 문집을 간행할 당대에도 그의 학맥이 이어져 오고 있음을 분명히 함으로써 이정을 사천지역 퇴계학맥의 대표적인 인물로 위상을 세웠다.

한편, 1640년(인조 18)에 眉叟 許穆이 쓴 跋文을 통해서도 몇 가지 사항을 추론할 수 있다.

공이 돌아가신지 70년 가까이 되었으니 60세 이상의 여러 유생들 중 한 사람도 그 당시 사람이 없으며, 단지 공의 사당만이 萬竹山 아래 바닷가에 있을 뿐이다. 처음에는 실로 교양이 없어 말과 행동이 서투르고 무식했으나, 지금은 풍속이 醇厚해지고, 子弟들도 종종 학문해야 할 바를 알게 되었으니, 이러한 결과는 실로 구암 공이 고향에서 학문을 부르짖어 그러한 변화가 지금에 이르렀다고 말할 수 있다. 지금 그의 遺稿가 온전한 상태로 남아있지도 않고, 병란에 산일된 남은 부분이 그나마 전해지기는 하지만 10분의 2~3일 뿐이다. 사천지방의 여러 유생들이 존경하고 그리워하는 마음이 변치 않아서 한두 마디의 짧은 말과 글도 후세에 귀중하게 여겨질 것이라 생각하여 없어지지 않을 방법을 의논했다. 그리하여 책으로 펴내고자 하여, 그 편차의 뒤섞임을 살펴 보니 또한 많은 부분이 완전하지 않고 잘못이 있었다. 이에 내가 자못 고인의 사업을 살필 수 있으리라 여겨 나에게 찾아와 물었으나 나의 너무나도 변변치

62) 성기옥 옮김, 『구암집』, 龜巖先生文集序(趙綱), 사천문화원, 구계서원 대관대유계회, 2013, 37~39쪽.

못한 능력 때문에 진실로 그러한 일을 사양하다가 어쩔 수 없이 외람됨을 무릅쓰고 내용처럼 차례를 간추려 정했다. ...<sup>63)</sup>

허목이 쓴 위의 발문은 이정이 사천의 학문적 기반을 닦았음을 전하고 있다. 또한 당시에 이정의 遺稿가 온전하게 전해지지 못했을 뿐 아니라 전란으로 산일되어 극히 일부만이 전하고 있었던 사실을 전하고 있다. 그리고 문집을 편찬할 당시에 이정의 생애와 저작에 대해 자세하게 알고 문집을 편찬할 만한 역량을 갖춘 유생이 없었다는 것과 사천의 유생들이 만들어 온 문집의 편집에 오류가 많았다는 점 또한 전하고 있다.

1641년에 간행한 『구암집』 원집의 서문을 쓴 조경과 발문을 쓴 허목은 李滉에서 金誠一, 鄭述로 이어지는 남인 학통을 중시한 남인 계열의 학자이다.

서문을 쓴 조경은 1655년(효종 6)에 영양에 건립된 英山書院에 이황과 김성일의 위판을 봉안하는 제문을 작성했는데, 여기에서 그는 이황이 김굉필, 정여창, 조광조, 이언적과 함께 文廟에 배향되었음을 강조하였다. 조경은 서인계 학자였던 윤근수의 문하에 출입하였음에도 남인계 학자로 비정된다. 조경의 교류 인물을 보면 초기에는 남인 및 서인계 인사와 두루 교류하다가 후기로 갈수록 남인계 중심으로 변화한 것으로 판단된다.<sup>64)</sup>

발문을 쓴 허목은 조경의 부친인 趙翼男의 묘갈명을 지었고 조경의 묘지명과 신도비명, 조경의 아우인 趙緜의 묘지명을 지었을<sup>65)</sup> 정도로 조경과 밀접한 교류관계를 가졌다. 허목은 퇴계학과에 속하며, 퇴계학과는 지역적으로 보아 嶺南學派와 近畿學派로 나누어지는데, 허목은 바로 근기학과의 성립에 기초 구실을 한 인물이다. 허목은 원래 서울에서 성장하여 향리인 漣川에서 만년을 보낸 분이다. 그런데 그가 퇴계의 학, 영남의 학에 접한 것은 寒岡 鄭述를 스승으로 섬기면서부터였다. 그는 젊은 나이에 부친의 任地를 따라 高靈·居昌 등 영남 여러 고을에 왕래하면서 한강의 학덕을 존모하여 23세

63) 『龜巖集』, 권2, 龜巖集跋(許穆).

64) 『龍洲遺稿』해제(김문식, 2015, 한국고전종합DB)

65) 『龍洲遺稿』해제(김문식, 2015, 한국고전종합DB)

때에 거창에서 그의 종형 觀雪公과 함께 星州로 찾아가서 한강을 만났다.<sup>66)</sup>

그는 88세의 생애에서 재직기간은 숙종 초 6년밖에 되지 않고 나머지 대부분의 시기를 야인 또는 남인정권의 山林으로 존재하면서 ‘영남’에게는 후견인 또는 각종 글과 글씨를 찬수하거나 써주는 데서 경남, 영남이 다 같이 원로로 받들게 되었다. 그는 선조 초 남명으로부터 절교를 당한 구암 및 구암 사후 복인정권 하에서 소외되어 있던 구암에 대한 신도비문을 짓고 『구암집』을 편집, 간행하는 등 미수의 이정에 대한 현양과 평가는 뒷날 이정을 성리학자 내지 명현으로 定評하게 하였다.<sup>67)</sup>

또한 龜巖書院에서 춘추로 이정을 배향하면서 晩全堂 洪可臣(1541~1615)이 春秋 享告文을 지었는데,<sup>68)</sup> 홍가신의 문집 『晩全集』의 서문을 許穆이 쓰고, 趙綱이 홍가신의 ‘神道碑銘’을 썼다.

이처럼 구암서원에 이정을 배향하면서 享告文을 짓고 『구암집』 원집을 초간하면서 서문을 쓰고, 문집의 발문과 이정의 신도비문을 짓는 일에 퇴계의 학맥을 잇는 남인의 학자인 홍가신, 조경, 허목 등이 주도적 역할을 하였다. 이러한 작업을 통해 남인 학자들이 이정을 퇴계의 학맥을 계승한 인물로 추승한 것이다.

## 2. 1749년(영조 23) 『구암집』 續集 간행

『구암집』 原集을 간행한 지 100년이 지난 뒤에 『구암집』 續集이 간행되었다. 이때 원집은 간행하지 않고 원집에서 누락된 많은 양의 저자의 시문과 원집 간행 이후 이정을 추승하는 과정에서 생산된 저작을 엮어서 원집과 비슷한 체제로 속집을 구성하였다.

66) 『眉叟記言』 해제(이우성, 2006, 한국고전종합DB)

67) 李樹健, 「龜巖 李楨의 家系와 生涯 및 ‘退南’과의 關係」, 龜巖 李楨 先生의 生涯와 學問 학술발표회, 2005, 23~24.

68) 『龜巖集』 卷2, 附錄, 春秋享告文(洪可臣), “於戲先生, 維學之博, 維道之間, 維專忠孝, 維振斯文”.

『구암집』續集 初刊本の<sup>69)</sup> 말미에 기록된 간기에 ‘寫板有司 崔萬甲 南國 升 鄭再泰 崔琬 文集修正有司 田禹基 齋有司 崔大衡 都有司 白尙彥 崇禎三 己巳三月日 龜溪書院開刊’이라 표기한 것을 보면 田禹基는 당시에 文集修正 有司를 맡았던 것을 알 수 있다. 속집이 1749년(영조 23)에 구계서원에서 간행되었기에, 속집은 구계서원 원생과 임원들이 중심이 되어 편집하였다 하겠다. 이때 발문은 1748년(戊辰年, 영조 25)에 魚有成이 썼는데,<sup>70)</sup> 어유성이 발문에서 자신을 지칭하기를 ‘後學 牙城’이라고 표현한 것으로 보아 그가 사천에 지방관으로 재임하였던 인연으로 속집에 발문을 썼음을 알 수 있다. 구계서원 임원과 원생을 중심으로 하는 사천지역 유림이 편집하고 사천군수 어유성이 교감하여 『구암집』續集을 완성하였다 하겠다.

어유성은 “잘못된 글자는 바로잡고 불필요한 부분은 삭제하였으며, 연대순으로 엮기도 하고, 정취가 비슷한 것을 모으기도 하였다. 문집에 전하기에 汗漫한 것은 신지 않았으며, 편집이 완성되어 續集이라 하였다”고 하였다. 어유성의 발문을 통해 몇 가지를 더 추론할 수 있다. 첫째, ‘余莅南邑有年 與田君禹基日相親 得所逸遺稿者’라 하여 어유성이 사천에 지방관으로 부임하였을 때 그는 사천의 田禹基로부터 없어서 알려지지 않은 이정의 遺稿를 보았다. 어유성은 이정의 유고가 훼손이 심하여 「속집」에 신지 못한 부분이 많았다는

69) 본고에서 참고한 사천문화원 소장 『구암집』 속집 초간본은 고려대학교 도서관 대학원(청구기호:D1-A747a) 소장본과 동일 판본이다.

70) 『龜巖集』, 「續集」, 龜巖集續集跋, “世所傳龜巖李先生文集, 只有一箇卷子, 而其詩詞之清越, 旨味之淵淡, 眞箇有道學者文也, 謹按退溪老先生文集, 其與先生問答書與詩, 不啻連篇累牘, 而是集中不少槩見, 余以是, 心竊訝焉, 恨不得見其全書, 余莅南邑有年, 與田君禹基日相親, 得所逸遺稿者, 如盲得視, 如渴得飲, 盥手莊玩, 灑然若狂清風而濯塵垢也, 第恨其殘蝨斷蠹, 漫泆散缺, 而至於老先生答問, 終猶漏焉, 噫, 樹立既如是卓然, 文詞又如是雄渾, 而著述之行於世者, 若是零瑣, 則其散失殘缺於兵燹之餘者, 又不知其幾許篇, 其可慨也已, 既田君以士林意, 請於余曰, 是集也, 惟刊刪是謀, 願得校證, 仍跋其語於尾, 吁, 士林厚望之囑, 余何敢當也, 屢辭而屢不獲, 仍念其零金片玉之可法於後學者, 不可使終泯於箱篋之遺塵, 而諸君子勤托, 亦不可孤, 愆其孤陋遂自讎校, 其間字之訛者正之, 句之衍者刪之, 有以年期而編者, 有以意趣而裒者, 有以不着於集傳而汗漫者, 則不錄, 如日記之類, 編既成, 名之曰續集, 仍誌其編末, 僭越之罪, 安所逃焉, 以俟後之君子云爾, 歲戊辰仲秋下澣, 後學牙城魚有成, 謹跋”.

것과 특히 퇴계와의 문답부분이 마멸이 심하여 「속집」에 수록하지 못하는 아쉬움을 표현하였다. 그것은 아래의 발문의 내용을 통해 짐작할 수 있다.

전쟁의 불길에 의해 남은 부분조차도 산일되거나 이지러졌으니, 몇 편이 그렇게 되었는지조차도 알 수 없다. ... 제일 한스러운 일은, 희미하게 남아 있는 부분에 종이 슬어서 이리 저리 흩어지고 이지러져 퇴계선생과의 문답에까지 이르렀으니, 결국 지나치게 마멸되어 있었다.<sup>71)</sup>

이런 이유로 인해 퇴계가 이정에게 보낸 편지는 많게는 약 140여 통이 전하는데 비해 이정이 퇴계에게 보낸 편지는 현전하는 것이 극히 소략하다.<sup>72)</sup>

둘째, 『구암집』 속집은 전우기가 사천지역 사림의 뜻을 모아 속집을 편집하였다는 것이다. 속집을 간행한 곳이 구계서원인 점을 보면, 이정이 사망한 지 170년이 지난 이후에도 여전히 구계서원을 중심으로 사천지역 사림이 이정을 추송하고 그의 학문을 계승해가고 있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 3. 1902년 『구암집』 重刊

20세기 초에 사천지역 유림은 훼손된 구계서원을 복원하여 대관대를 중수하고 이정을 배향한 뒤에 『구암집』을 중간하였다. 이때 원집과 속집을 중간하고, 別集을 새로이 편집하여 함께 간행하였다. 별집에는 『陶山全書』에서 이정의 서간을 발췌하여 수록하였고, 「陶山弟子錄」, 「南冥師友錄」 등 여러 저작에서 저자 관련 사실을 모았다. 그리고 속집 간행 이후 이정을 추송하는 과정에서 생산된 저작 또한 수록하였다.

대관대를 중수한 이후 1902년에는 이정이 편찬한 『성리유편』을 重刊하였

71) 『구암집』, 「속집」, 龜巖集續集跋.

72) 黃渭周는 필사본 『퇴계선생전서』, 『퇴계선생전서유집』 『퇴도선생집』 등을 참고하여 퇴계가 이정에게 보낸 서한 약 140여 통을 확인하였다(黃渭周, 「退溪와 龜巖의 往復書翰」 『퇴계학과 한국문화』, 47. 2010).

다.<sup>73)</sup> 『성리유편』은 1564년(명종 19)에 이정이 편찬한 것인데, 金正國이 『性理大全節要』에서 생략했던 詩文 부분만을 『性理群書』를 참조하여 『성리대전』보다 더 자세하게 실은 것이다.<sup>74)</sup> 刊記에 ‘上之三十九年歲在壬寅(1902) 春 大觀臺重刊’이라 하여 1902년에 대관대에서 간행하였음을 알 수 있다. 이때 발문은 李中均(1861~1933)이 썼는데, 그는 본관이 眞城으로 퇴계의 후손이다. 그는 향산 이만도의 族姪로 『響山集』의 발문을 쓰기도 하였다.

『성리유편』을 간행한 후 사천지역의 유림은 대관대에서 같은 해에 『구암집』을 重刊하게 된다. 李種杞가 쓴 『구암집』 중간 발문에 따르면, 『성리유편』을 간행한 후 선생의 문집도 함께 중간하였다고 하였다.<sup>75)</sup> 1902년에 『구암집』을 중간할 때 새로 편찬한 別集은 響山 李晚燾(1842~1910)가 1901년에 서문을 썼다. 그는 퇴계의 후손으로 1910년 8월 대한제국이 일본에 의하여 강제 병탄을 당하였다는 소식을 듣고 24일간 단식을 결행한 끝에 殉國한 애국지사이다.

별집의 서문에서<sup>76)</sup> 이만도는 원집이 간행된 지 100년이 지나서 속집이 나오고, 속집이 나온 뒤 200년이 지나 별집을 간행하게 되었음을 적고 있다. 그는 이정의 후손 泰煥, 洪翼과 柳震台, 崔柄敏, 崔鏞敏 등이 유문을 모아 별집을 편찬하였음을 밝혔다. 그리고, ‘先生之遺文至今保存 亦大觀臺士林之力 而況又增飾而發揮之者乎(선생의 유문이 지금까지 보존된 것 또한 대관대 사림의 공력이거니와 하물며 더 꾸며서 발휘하는 데에 있어서라)’라 하여 별집을 간행하기까지에는 사천지역 유림의 구심지인 ‘대관대유계’의 사림이 주도적 역할을 하였음을 밝혔다.

이만도의 문집인 『향산집』에는 이만도가 辛丑年(1901)에 『구암집』을 重刊

73) 이 책은 1564년에 간행한 목판본이 규장각에 전하고 있으며(奎 6291), 이때 목활자로 중간된 것도 규장각에 전하고 있다(古 1343-4).

74) 『性理遺編』에 대한 내용은 우정임의 연구를 참고할 수 있다(우정임, 「조선전기 『性理大全』의 이해과정－節要書의 編纂·刊行을 중심으로－」, 『지역과 역사』31, 2015).

75) 『구암집』 별집, 龜巖先生文集重刊跋(李種杞).

76) 『구암집』 별집, 龜巖先生別集序, “上之三十八年辛丑重陽日, 後學通政大夫前行承政院同副承旨兼, 經筵參贊官, 春秋館修撰官眞城李晚燾, 謹序”.

하면서 崔正基(1846~1905)에게 보낸 答書가 실려 있다.

『구암집』을 追刻하는 일은 실로 斯文의 성대한 일이니, 都檢의 직임은 본래 비천한 내가 감당할 바가 아닙니다. … 元集, 續集, 別集 3편을 합하여 하나로 만들려 한다는 말을 本孫에게 들었습니다. 나의 생각은 그렇지 않습니다. 원집은 이미 선배들의 편집을 거쳤으니 다시 후인의 손에 맡기는 것은 敬畏하는 마음이 부족한 듯합니다. 속집은 근세에 이루어졌으니 지금 별집과 합하여 편집하는 것이 과실이 적을 듯합니다. 형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속집은 한 차례 쪽 살펴보았는데 상의할 만한 배열과 자획이 매우 많았습니다. 그러므로 참람되어 찌를 붙였습니다. 원집의 詩類에 礪石臺는 필시 石礪이 잘못 뒤바뀌었을 것입니다. … 附錄 중에 『陶山及門錄』의 師門의 시와 편지를 붙인 것도 합당하지 않은 듯합니다. 『도산급문록』은 『理學通錄』의 전례를 모방하였기 때문에 諸賢의 아래에 모두 시와 편지를 붙인 것이 있습니다. 『구암집』의 경우는 사문의 편지가 많게는 몇 책이나 되니 다 부록하는 것은 오히려 괜찮거니와, 그 편지를 축약해서 붙일 필요가 뭐가 있겠습니까. 다 부록하는 것은 본집의 분량이 적은 경우에 혹 이 전례를 썼지만 『구암집』은 분량이 본래 적지 않으니, 또 어찌 이와 같이 할 필요가 있겠습니까. 편지와 부록이라고 이른 것은 삭제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sup>77)</sup>

위의 편지에 따르면, 이만도는 『구암집』을 중간하면서 원집의 내용과 체제에는 변화를 주지 않기를 원하였던 것을 알 수 있다. 그리고 그는 문집의 내용에 대한 교정도 해주었으며, 문집 전체의 구성에 대한 편집 방침도 세웠다. 즉, 그는 1902년에 別集을 처음 만들면서 별집에 이정의 교유인과 후학의 편지를 다량 편집해서 넣으려다가 본집(원집과 속집)에 이정의 저작이 많으므로 생략하였던 것이다.

그리고 『구암집』 중간의 발문은 晚求 李種杞(1837~1902)가 썼는데,<sup>78)</sup> 이종기는 19세기 후반기에 활동한 영남의 퇴계학과에 속하는 유학자이다.<sup>79)</sup>

77) 『響山集』 권4, 答崔肅仲 正基○辛丑.

78) 『구암집』 별집, 권2, 龜巖先生文集重刊跋(歲壬寅清明節, 後學全義李種杞謹跋).

79) 임종진, 「晚求 李種杞의 삶과 사상적 특징」, 『남명학연구』31, 2011.

1902년 『구암집』을 중간하는 사업에는 사천지역의 대관대 유림뿐 아니라 당시 영남의 대표적인 유림이 참여하였음을 알 수 있다. 1901년 가을 侁宇 郭鍾錫은 문인들과 泗川으로 가서 南海를 유람하고, 『구암집』을 교정하였다.<sup>80)</sup> 곽중석은 寒洲 李震相의 문인으로서 경상 우도 지역은 물론 좌도 지역을 포함하여 전국적 명망을 한 몸에 받는 대유가 되어, 1919년 파리에서 열린 만국평화회의에 조선 유림의 대표로서 독립을 청원하는 장서를 보내는 일을 주도하였다.<sup>81)</sup> 곽중석은 1894년(고종 21)부터 『남명집』을 간행한 중심 인물이었으므로, 『구암집』 중간에 그가 참여한 것은 江右 지역 선현을 추모 하면서 남명과 이정을 중요한 인물로 인식하였음을 수 있다. 이로써 한말에 이정은 영남지역에서 퇴계학파의 중요한 인물로 재평가되었음을 알 수 있다.

위에서 본 바와 같이 1900년대 초에 大觀臺重修記를 쓴 宋秉璿과 『구암집』 중간 발문을 쓴 李晚燾, 이정의 『구암집』을 중간할 때 교정을 본 郭鍾錫은 모두 한말 퇴계 학맥을 이은 애국지사요 항일운동가이다. 1900년대 초에 사천의 유림은 한말 애국지사들의 후원 아래 대관대유계를 만들고, 대관대를 중수하여 이정을 배향하여 추승하였다. 그리고, 대관대에서 『구암집』을 중간함으로써 사천은 한말에 퇴계학맥을 계승한 중요한 지역으로 위상을 차지하였다. 뿐만 아니라 사천은 대관대유계가 중심이 되어 위정척사를 내세우며 항일운동을 전개한 한말 서부경남 유림의 거점 지역이 되었다.

이후 『구암집』은 1935년에 한 차례 後刷되었다. 이때 후쇄본은 부산대학교 도서관(청구기호:4-2-214 1-3)에 소장되어 있는데<sup>82)</sup>, 여기에는 昭和 10년(1935)에 구계서원에서 간행하였다는 刊記가 있다. 후쇄본은 1902년 중간본 『구암집』에 1934년에 崔演國(1887~1951)이 쓴 발문을 써서 붙여 인쇄하였다. 그리고 후쇄본이 간행된 시기가 일제 강점기였기에 후쇄본에는 연도를 표기하는 곳에 ‘皇明’이라는 표기는 삭제된 채 인쇄하였다.<sup>83)</sup>

80) 梁基正, 『侁宇集 해제』, 2005, 한국고전종합DB

81) 李相弼, 「侁宇 郭鍾錫의 南冥學 繼承樣相」, 『남명학연구』28, 2009, 205쪽.

82) 경기대학교 도서관(경기-K100925-1=2)과 국립중앙도서관(BC古朝46-가1359)에도 소장되어 있다.

1902년에 사천지역 유림이 ‘대관대유계’를 만들고 대관대를 증건하여 이 정을 배향함으로써, 사천의 대관대유계는 퇴계학맥의 儒風을 계승하고 위정척사를 내세우며 한말 유림들이 항일운동을 하는 거점 역할을 하였다.

#### IV. 맺음말

본고는 구암 이정 사후에 후학들이 그를 추송하고 문집을 간행하여 그를 기억하고 현창하는 것이 지니는 정치사회적 함의를 살펴본 것이다. 사천지역 이정의 후학들은 이정 사후 40년이 지난 1611년에 ‘龜山祠’를 건립하고 이 정을 배향하여, 사천의 척박한 학문적 풍토를 쇄신한 이정의 업적을 기리고 추송하고자 하였다. ‘龜巖書院’을 건립하여 서원으로서의 면모를 갖추고 그의 학맥을 이어갔다. 이때 이정의 제자 허사증은 이정이 퇴계를 스승으로 하여 김굉필의 학술을 이어받아 성리학의 도통의 맥을 이었다고 하였다. 즉 이정의 제자들은 이정이 퇴계의 학맥을 사천에 전하였다는 것과 김굉필에서 퇴계로 이어지는 도통의 맥을 이은 인물로 그를 인식하고 있었다. 이후 1645년(인조 23)에 許穆이 龜山祠院庭에 이정의 神道碑인 龜山祠碑를 세워 이정이 퇴계의 학맥을 계승하였음을 분명히 하였고, 그를 추송하는 작업이 일단락되었다.

---

83) 최연국은 발문에서 구계서원이 철폐된 이후 최연국이 戊辰年(1928)에 萬竹山 大觀臺 아래 院宇를 중창하여 龜巖과 醒翁 兩先生을 배향하였고, 중창한 때에 鄉道의 논의를 거쳐 先朝인 涵義齋公 崔瓘을 追配하였으며, 이에 『구암집』을 重印한다고 하였다. 최관은 최연국의 6대조이며 이정의 六世孫女婿라고 하였다(부산대학교 도서관(청구기호:4-2-214 1-3) 1935년 후쇄본 『구암집』 跋(… 演國之六大祖涵義齋公, 卽先生之六世孫女婿也, … 演國之先君漢南公, 亦有慨然之心, 與鄉道士林, 修契多年, 得重朔之資, 而後幾年, 先君未遂而歿, 嗚呼, 演國之心, 當何如哉, 以去戊辰, 演國勿替先人之志, 重朔院宇於萬竹山大觀臺之下, 遵舊制五梁屋, 而墻以圍之, 砌以崇之, 院貌, 輪奐, 連享龜巖醒翁兩先生, 重朔之日, 以鄉道論, 追配吾先祖涵義齋公於兩先生之在左東焉, … 闕逢闡茂之仲春下澣, 外裔前行通訓大夫中樞院參議, 朔寧崔演國, 敬識).

사천지역 사림은 서원을 중후하게 重建한 뒤 1675년(숙종 1) 구암서원에 사액을 청하였는데, 사액을 청한 다음해에 龜溪書院으로 사액을 받았다. 이후 1723년(경종 3)에는 仁穆大妃의 廢母論을 반대하다 1618년에 사천에 移配되어 사천의 유풍을 흥기하는데 기여한 醒翁 金德誠(1562~1636)을 구계서원에 추향하였다. 사천의 사림이 궁벽한 바닷가에 유학의 학문적 기반을 유지하기 위해 애쓴 노력이 구계서원을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었음을 알 수 있다.

뿐만 아니라 17세기의 학자들이 퇴계의 제자로서 뛰어난 인물로 구암을 높이 평가하고 송인수의 제자로서 구암의 위상을 부각하였다. 이것은 송시열의 영향력이 가지는 당시의 정치사회적 합의 또한 지닌다고 할 수 있다. 조선 후기 유학사에서 퇴계는 이미 굳건한 학문적 위상을 차지하고 있었기에, 노론의 정치사회적 영향력 아래 노론 일각에서 송시열의 학맥을 퇴계와 연결하기 위한 연결점으로 송인수와 이정의 관계에 주목하였다.

1836년(현종 2)에는 퇴계의 9대손인 李家淳이 이정의 諡號를 청하면서 이정을 이황의 으뜸가는 제자로 평하였다. 이때 퇴계의 후손이 이정의 시호를 청한 것은 19세기 초반에도 영남지역 사림이 이정을 퇴계의 학맥을 이은 중요한 인물로 인식하고 있었기 때문이라 하겠다.

1902년에 사천지역 유림이 ‘대관대유계’를 만들고 대관대를 중건하여 이정을 배향함으로써, 사천의 대관대유계는 퇴계학맥의 儒風을 계승하였다. 이때 대관대유계안 서문을 쓴 李忠鎬와 大觀臺 重修記를 쓴 宋秉璿이 주목된다. 李忠鎬는 퇴계 주손 李中慶의 아들로 퇴계의 13세손이다. 그리고 宋秉璿은 尤庵 宋時烈的 9대손이다. 퇴계의 후손이 이정을 추송하고 사천지역 유풍을 일으키는 데 역할을 한 것은 이정이 퇴계의 학맥을 이었기 때문이다. 송시열의 후손이 이정을 추송하는 일에 중요한 역할을 한 이유는 이정이 사천에 귀양온 宋麟壽에게 수학했기 때문이다. 송시열의 후손이 송인수의 제자로서 구암의 위상을 부각한 것은 20세기 초에도 퇴계의 학맥을 이은 구암이라는 상징성, 즉 퇴계의 학맥이 미치는 사회적 영향력과의 관련이 있을 것이다.

한편, 사천지역 유림은 1641년에 처음으로 『구암집』 「原集」을 간행하면서

퇴계학을 계승한 당대 대표적인 남인 학자인 조경과 허목에게서 서문과 발문을 받음으로써, 이정을 사천지역 퇴계학맥의 대표적 학자로 위상을 정립하였다.

1749년에는 구계서원 원생과 임원이 중심이 되어 『구암집』 『續集』을 간행함으로써 사천에는 이정 사후 170년이 지난 뒤에도 이정의 학맥을 이어오고 있었다. 1902년에는 「別集」을 추가하여 원집과 속집, 별집의 6권 3책으로 『구암집』을 重刊하였다. 『구암집』 중간의 발문은 李種杞(1837~1902)가 썼고, 서문은 이만도가 썼으며, 곽종석은 문집 교정에 참여하였다. 이와 같이 1902년 『구암집』을 중간하는 사업에는 사천지역의 대관대 유림뿐 아니라 당시 영남의 대표적인 유림이 참여하였음을 알 수 있다. 이로써 사천은 한말에 퇴계학맥을 계승한 중요한 지역으로 위상을 차지하였다. 뿐만 아니라 사천은 대관대유계가 중심이 되어 위정척사를 내세우며 항일운동을 전개한 한말 서부경남 유림의 거점 지역이 되었다.

※ 이 논문은 2019년 2월 10일에 투고 완료되어  
2019년 2월 12일부터 3월 7일까지 심사위원이 심사하고,  
2019년 3월 8일 편집위원회에서 게재 결정된 논문임.

## 참고문헌

- 『龜巖集』(李楨), 『書院叢錄』, 『승정원일기』, 『고봉선생문집』, 『響山集』, 『宋子大全』, 『陶谷集』 『息山集』, 『眉叟記言』, 『龍洲遺稿』
- 강동욱, 「南冥의 年譜와 編年 考察」, 『南明學研究』44, 2014.
- 姜玟求, 「龜巖 李楨과 泗川·晋州地域의 退溪學脈-李楨의 性理學 研鑽과 文學을 중심으로-」, 『退溪學과 韓國文化』31, 2002.
- 權五榮, 「19세기의 嶺南 學界와 侁宇 郭鍾錫의 理學」, 『南明學研究』26, 2009.
- 권오영, 「19세기 초 안동유림의 유희와 활동」, 『조선후기 유림의 사상과 활동』, 들베개, 2003.
- 권오영, 「19세기의 嶺南學界와 侁宇 郭鍾錫의 理學」, 『남명학연구』28, 2009.
- 김기승, 「홍가신의 사상과 활동」, 『조선중기 홍가신 허목의 사상과 학문』, 수원 화성박물관, 2012.
- 金正萬, 「龜巖 李楨의 道學思想 研究」, 성균관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14.
- 梁基正, 『侁宇集 해제』, 한국고전종합DB, 2005.
- 박병련, 「醒翁 金德誠의 관료적 생애와 정치적 활동」, 『구암사상 학술집』, 2013.
- 백운용, 「문집에 실린 “구암 이정” 관련 기록의 양상」, 구암학술대회, 사천문화원, 2018년 11월 24일.
- 史載明, 「16~17C초 남명문인의 형성과 강학」, 『남명학연구논총』9, 2001.
- 신병주, 『『龜巖集』 解題』, 『南冥學研究』10, 1991.
- 성기옥 옮김, 『구암집』, 사천문화원, 구계서원 대관대유계회, 2013.
- 申炳周, 「龜巖 李楨의 학문과 교유 관계」, 『구암사상 학술집』, 사천문화원, 2013.
- 오보라, 「李楨 『龜巖集』 수록 작품의 작자에 대한 재검토」, 『한문학보』29, 2013.
- 吳世炫, 「月沙 李廷龜(1564~1635)의 文翰 活動과 學統 意識」, 『韓國史論』51, 2005.
- 吳二煥, 「大觀臺 緣起-李楨과 曹植의 관계를 중심으로-」, 『남명학연구』31, 2011.

- 우정임, 「龜巖 李楨의 서적편찬과 간행이 16세기 道統 확립에 미친 영향」, 『지역과 역사』38, 2016, 4.
- 우정임, 「조선전기 『性理大全』의 이해과정-節要書의 編纂-刊行을 중심으로-」, 『지역과 역사』31, 2015.
- 이동인, 「근기남인 道統論의 이해와 허목 古學의 연원」, 『조선중기 흥가신 허목의 사상과 학문』, 수원화성박물관, 2012.
- 李秉休, 『朝鮮前期 士林派 現實認識과 對應』, 일조각, 1999.
- 李相弼, 「侂宇 郭鍾錫의 南冥學 繼承樣相」, 『남명학연구』28, 2009.
- 李樹健, 「龜巖 李楨의 家系와 生涯 및 ‘退南’과의 關係」, 『안동사학』 9-10, 2005.
- 李樹健, 『嶺南學派의 形成과 展開』, 일조각, 1998.
- 이은식, 「龜巖과 晉州史獄」, 『구암사상 학술집』, 사천문화원, 2005.
- 이은식, 「대관대 유계의 성립과 흐름」, 『구암사상 학술집』, 2013.
- 임종진, 「晩求 李種杞의 삶과 사상적 특징」, 『남명학연구』31, 2011.
- 정성희, 「19세기 조선 유학사 정리 작업에 대한 연구-宋秉璿의 성찰적 조선유학사 정리 작업을 중심으로-」, 『유학연구』28, 2013.
- 정우락, 「龜巖 李楨 연구의 반성적 모색」, 『退溪學과 儒敎文化』52, 2013.
- 崔錫起, 「浮查 成汝信의 智異山遊覽과 遊山詩」, 『韓國漢詩研究』7, 2000.
- 黃渭周, 「退溪와 龜巖의 往復書翰」, 『退溪學과 儒敎文化』47, 2010.
- 『龜巖年譜』 泗川文化院, 2002.
- 『龍洲遺稿』 해제(김문식, 2015, 한국고전종합DB).
- 『眉叟記言』 해제(이우성, 2006, 한국고전종합DB).
- 『사천비석대관』, 사천문화원, 2010.

## Succession of Toegye school in Sacheon Region in view of the Lee Jeong worship and the publication of the GuAm collection(구암집)

Woo, Jung-im

This paper reveals that the Confucian scholars of Sacheon have made a position as a scholar representing Toegye school in the West Gyeongsang area by publishing the GuAm collection. Lee Jung's junior scholars established Gugye Seowon(구계서원) to guide him, and Gusan Sabi(구산사비) to make it clear that Lee Jeong inherited the line of descent from Sacheon. Hong Ga-shin, who wrote the ancestral rites of the Spring and Autumn Period of GuAm Seowon(구암서원), and Heo Mok, who wrote Gusan Sabi, are all the Yeongnam Sarim who connected the Toegye school. In the 19th century, Lee Ga-sin, the descendant of the Toegye, called him the most prominent disciple of Lee Hwang, when he asked for the memorial service. At the end of the year, the Confucian scholars of Sacheon succeeded the spirit of studying in the Toegye school by creating the “Daegwan daeyegye”(대관대유계) and devoting itself to Lee Jeong by building the Daegwandae(대관대). Then, in 1641, the Confucian scholars of Sacheon gathered the texts of the teachers and published the original texts of the GuAm. At this time, the introduction was write by Jo Gyeong and the epilogue

was write by Heo Mog, and these were the Yeongnam Sarim who succeeded in the academic context of the decadence. Since then, descendants have published a collection of GuAm in 1749 and a collection of GuAm in 1902. At that time, descendants of Toegye and Yeongnam Sarim participated in literary publications, including writing introduction and epilogue. At the end of the year, Sacheon was ranked as an important area in the western Gyeongsangnam-do region that succeeded the Toegye school.

**keywords:**

Lee Jeong, GuAm collection(구암집), Daegwandae(대관대), GugeSeowon(구계서원), Song Insoo.

